

가상현실·3D 프린팅...차세대 산업 키운다



8일 문을 여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가운데)에는 '극한체험 마법지팡이'(왼쪽)와 '에그형 라이더 시뮬레이터' 등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들이 배치돼 있다.

광주CGI센터에 스마트미디어·3D프린팅센터 개소

중기·창업 지원...오늘 광주글로벌게임센터도 문 열어

광주CGI센터가 가상현실(VR)과 3D프린팅,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오후 3시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과 장병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남구 송암동 광주CGI센터에서 'K-ICT 광주스마트미디어센터'와 'K-ICT 3D프린팅 광주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역별 특화 분야에 적합한 시제품 시험환경과 입주공간을 갖추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간이다. 2014년 서울(스마트미디어랩)을 시작으로 지난해 경기(1인방송·인터넷동영상)와 대구(디지털사이니지) 센터가 운영 중이다.

올해 광주(가상현실)에 이어 경북(스마트광고)과 전북(미디어파사드) 센터가 문을 열면 총 6개 센터가 운영된다.

3D프린팅 지역센터는 차세대 핵심기술

인 3D프린팅 기술과 스마트소재, 탄소융복합, 스마트기기 등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해 3D프린팅 장비 및 시제품 제작과 기술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지역 기업과 대학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 제품개발과 창업지원도 한다.

3D프린팅 지역센터는 지난해 경기(의정부), 전북(전주), 대구, 경북(포항), 올해 부산, 충북(충주), 대전에 이어 광주센터가 문을 열었다.

최재유 차관은 이날 "광주스마트미디어센터와 3D프린팅 광주센터가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경쟁력 있는 가상현실, 3D프린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 게임기업들의 지속성장을 도와줄 '광주글로벌게임센터'도 문을 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8일 오후 2

시 광주CGI센터에서 광주글로벌게임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광주지역 첨단영상 인프라와 결합한 체험형 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총 30억원(국·시비 각각 15억원)을 지원해 조성됐다.

게임센터에는 광주CGI센터 입주기업과 중국 기업이 개발한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5종의 시뮬레이터 기기가 배치돼 있다. 국내는 물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상현실 게임을 수출하며 성장하고 있는 광주CGI센터 입주기업(㈜인스퀘어)이 개발한 '극한체험 마법지팡이'도 이곳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또 ㈜드래곤플레이가 개발하고 있는 FPS게임의 사전테스트도 이뤄진다. 안경형태의 VR기어를 착용한 뒤 모형 총기를 들고 실제 전경터를 누비는 게임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모형 총기는 '3D프린팅 광주센터'에서 제작됐다.

중국의 달갈모형 VR체험기기 '에그형 라이더 시뮬레이터' 1대와 의자에 앉아 가상비행 등을 즐길 수 있는 '라이더 시뮬레

이터' 2대도 비치됐다. 중국이 개발한 가상현실 게임과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을 비교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게임도 현 기기에 적용시켜 체험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 기기를 활용해 입주기업들이 개발한 VR게임의 사전테스트도 이뤄졌다. 현재 중국에서 개발한 기기에 맞춰 게임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 해외 수출 등 광주지역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또 광주글로벌게임센터를 국내외 게임개발자들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는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추후 체험단 모집 등 형태로 일반시민들이 VR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수집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글로벌게임센터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안테나숍 역할과 콘텐츠의 소비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이라며 "지역 게임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의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뇌 전극 이식 없이 작동 '로봇손' 개발

뇌의 전기신호와 눈동자의 움직임에 포착해 서명하거나 포크를 사용하는 등의 일상활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로봇손'(사진)이 개발됐다.

기존 로봇손과 달리 신체에 전극을 이식할 필요가 없는 데다, 특수장치가 장착된 모자를 쓰고 사용하는 방식이라 실용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튀빙겐대학병원 수르조 소카다 박사 연구팀은 최근 사지마비 환자 6명을 대상으로 로봇손의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과학저널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게재했다.

로봇손 사용자가 특수 센서가 장착된 모자를 쓰면, 뇌의 전기신호와 눈동자의 움직임이 측정돼 태블릿 PC로 전송된다.

사용자는 PC의 명령을 받은 장갑 형태의 기계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세밀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척추장애를 앓아온 테스트 참가자들은 이 로봇팔을 이용해 감자 칩을 집어 올리거나 문서에 서명하는 등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이 로봇손의 작동법을 익히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은 로봇손이 실용적이며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으며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뇌의 전기신호를 읽어 기계 팔이나 손을 움직이는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계들은 대부분 뇌나 척수에 전극을 이식해야 하거나, 뇌의 전기신호 전달이 용이하도록 사용자가 머리 부분에 젤을 잔뜩 발라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튀빙겐대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손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어깨와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등 심각한 중증 사지마비 환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진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로봇손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팀을 이끈 소카다 박사는 로봇손이 5000~1만 유로(한화 630만~1260만 원) 가격으로 2년 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화순 서유마을 "농촌 뉴스 만들었어요"

시청자센터, 정부3.0 맞춤 교육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최근 화순군 서유리 마을회관에서 '서유마을 농촌뉴스 시사회'를 열었다.

이번 시사회는 평균연령 70세의 서유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함기에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자리다.

서유마을 어르신 대상 미디어교육은 지난 9월 시작해 지난달 27일까지 12주간 진행됐으며, 최고령 조구례(여·101)씨 등 30명이 참여했다.

서유마을의 자랑거리 조청을 소재로 한 영상부터 300년 진주정씨 집성촌에서 치르는 시제, 멀리 있는 자식들을 향해 서유마을을 낚시를 알려주며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낸 작품 등 6개 영상이 상영됐다.

한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정부 3.0 정책에 따라 맞춤형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화순군과 '군민 미디어향유권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효성ITX, 고객 빅데이터 분석 AI 개발

통화 인식 '익스트림VOC'

효성의 IT(정보기술) 전문 계열사인 효성ITX는 고객 상담 내용 빅데이터를 분석·관리해주는 새로운 인공지능(AI) 솔루션인 '익스트림VOC'(xtm Voice of Consumer)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익스트림VOC는 콜센터 상담사와 고객 간 음성 대화를 문자로 자동 변환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솔루션이다. 고객 문의 내용에서 이슈나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다.

지금까지는 빅데이터 음성 녹음 파일을

분석할 때 일부 데이터만 선별해 활용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 포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익스트림VOC는 음성 인식 기술 엔진(STT)과 텍스트 분석(TA) 엔진을 탑재해 고객 상담 내용을 콘텐츠와 감성으로 구조화하고, 연관 키워드, 이슈 등을 도출해 준다. 정부기관이나 고객센터 등에 적용되면 사업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다고 효성ITX는 설명했다.

조현준 효성 정보통신PG장(사장)은 "콜센터 산업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등과 접목하면서 '지능화된 가상 비서' 역할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과학관' 7000명 만났어요

광주과학관, 고흥·해남·부안·고창 방문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올해 진행한 '찾아가는 과학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과학문화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과학관'은 지난 11월부터 고흥·해남·부안·고창 등 4곳에서 진행됐다.

목표했던 관람객 3000명의 2배가 넘는 7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이동형 천문대 '투체리움 스타카'의 경우 1000여 명이 학생과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광주과학관뿐 아니라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등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우주와 바다에 대한 과학프로그램을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과학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교육속박동 건립을 통해 과학문화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과학관을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